

김정은, 러 로켓기술 관심...푸틴 “北 위성개발 도울 것”

북·러 정상,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서 4년5개월만에 회담 무기 거래 논의 여부 관심...북, 회담전 탄도미사일 발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서 4년 5개월 만에 다시 만났다.

이날 낮 12시 30분께 푸틴 대통령이 먼저 정상회담 장소인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 도착했고, 약 30분 뒤에 김 위원장이 도착했다.

2019년 4월 25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정상회담한 뒤, 4년 5개월 만에 다시 대면한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반갑게 인사하며 악수하고 짧은 대화를 나눴다.

현지 뉴스 영상을 보면 푸틴 대통령은 “당신을 만나서 정말 반갑다”며 “이곳이 우리의 새로운 우주기지이다. 당신께 보여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바쁜 일정에도 초대해 줘서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보스토치니 우주기지 시설에 입장하지 않아 푸틴 대통령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며 북한과 우주·군사 분야에서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북한의 인공위성 제작을 도울 것인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이 때문에 이

곳에 왔다. 북한 지도자는 로켓 기술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고, 그들은 우주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회담에서 군사기술 협력 문제도 논의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서두르지 않고 모든 문제에 대해 얘기할 것이다. 시간은 있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지난 7월 북한을 방문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북한이 그를 환대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보스토치니 우주기지 방문목에 “첫 우주정복자들을 낳은 로씨야(러시아)의 영광은 불멸할 것이다”라는 글을 남긴 뒤, 푸틴 대통령과 우주기지 주요 시설을 시찰했다.

이들은 러시아가 개발한 최신 로켓 ‘안가라’ 조립·시험동과 소유스2 우주로켓 발사 시설, 현재 건설 중인 안가라 발사 단지 등을 살펴봤다.

김 위원장은 러시아 로켓 기술에 관심을 보였고, 고개를 가웃거리면서 질문을 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군사와 국제 정세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서 회담하고 있다. 이날 김 위원장은 방문목에 “첫 우주정복자들을 낳은 로씨야(러시아)의 영광은 불멸할 것이다”라는 글을 남긴 뒤 푸틴 대통령과 우주기지 주요 시설을 시찰했다. /연합뉴스

특히 미국 등이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을 경고하고 있는 무기 거래도 협의했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번 북러 정상회담이 무역, 경제적 유대, 문화 교류 등 양국 간 협력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인테르팍스 통신은 페스코프 대변인이 회담에서 무기 거래가 논의될지에 여부에 대해 “물론 이웃 국가로서 공개되거나 발표되는 안 되는 민감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 등 양국 대표단이 배석한 형태의 회담을 먼저 갖고, 이어 가능하면 일대일 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약 3시간에 걸친 회담이 끝난 직후, 두 정장은 만찬을 함께 했다.

당초 김 위원장은 4년 5개월 전과 마찬가지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푸틴 대통령을 만날 것으로 예상됐으나, 북러 정상은 최첨단 우주시설인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를 회담 장소로 택했다.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를 방문한 외국 정장은 김 위원장이 처음은 아니다.

한편 북한은 러시아와 정상회담을 앞두고 탄도미사일을 기습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13일 “우리군은 오전 11시 43분께부터 11시 53분께까지 북한이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번 미사일 도발은 러시아를 방문 중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날 오후 1시 남짓에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시작하기 1시간여 전에 이뤄졌다. /연합뉴스

전남 사랑에 서포터즈 가입자 40만 명 돌파

전남의 맛과 멋을 전국에 알리는 '전남 사랑에(愛) 서포터즈' 가입자가 40만 명을 넘어섰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100만명을 목표로 모집에 나선 '전남 사랑에(愛) 서포터즈' 가입자가 40만 명을 돌파했다.

'전남 사랑에 서포터즈'는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전남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국민들을 서포터즈로 가입시켜 지역의 발전 방안과 미래를 그려 나가는 후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저출산, 고령화, 인구 유출 등 지방의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관계 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됐다.

전남도는 지난해 출범식을 시작으로, 응원대회, 서포터즈 청년지원단 구성 등 각종 봄 조성 행사를 개최하는 한편, '2022-2023년 전남 방문의 해',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등 테마 이벤트와 연계한 온·오프라인 홍보, 캠페인, 관광객 대상 맞춤형 홍보 등을 추진해 1년 만에 40만명이 넘는 서포터즈 모집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전남도는 더 많은 서포터즈 가입자 확보를 위해 모바일 소통 채널 개설, 활인가맹점 확대 등 운영·관리체계도 확충하고 고도화할 계획이다.

특히 하반기 열리는 제104회 전국체전 및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 국제농업박람회와 다채로운 시군 축제 등을 연계해 선수단, 관람객을 대상으로 홍보 마케팅을 펼칠 방침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추석 성묘·별초 때 진드기 물림 주의하세요

광주보건환경연, 쯤쯤가무시증 등 매개 진드기 개체수 증가

진드기는 일반적으로 야생동물이 지나다니는 수풀이 우거진 곳에서 발견되며, 특히 9월에는 유충이 많고 개체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법은 야외활동에 앞서 긴 소매, 긴 바지, 모자 등을 착용해 풀밭 등에 있는 진드기에 노출되는 것을 미리 차단해야 한다.

또 야외활동 후에는 샤워 등을 통해 진드기에 물린 자국이 있는지 수시로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잠복기가 지난 후 38도 이상의 발열과 소화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야외활동 이력을 밝히고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

김선희 감염병조사과장은 “추석 연휴를 전후로 시민들의 야외활동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산에 오를 때는 정비된 등산로를 이용하고 풀밭에 바로 앉거나 눕지 않는 등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긴소매·긴바지·모자 등 착용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은 13일 “추석 시즈 성묘와 별초 등 야외활동을 할 때 진드기 물림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요 진드기 매개 감염병으로 ‘쯤쯤가무시증’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SFTS)’이 있다.

쯤쯤가무시증은 쯤쯤가무시균에 감염된 털진드기 유충에 물려 감염되며,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릴 경우 발생한다.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은 매월 지역 산림과 수변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진드기를 포집해 개체수 분포와 병원체 보유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는데, 무더운 7-8월에는 쯤쯤가무시증의 매개체인 털진드기 검출 수치가 '0'이었던가 9월부터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을 매개하는 참

층간소음 갈등, 관리위원회서 조정 의무화

광주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일부 개정

광주시가 층간 소음 갈등을 당사자와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해결하지 못할 때 반드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하도록 했다.

광주시는 이런 내용으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일부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고, 주민 등으로 구성하고도 유명무실해진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역할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기준에 층간소음 분쟁이 생기면 관리사무소 등이 피해 사실을 조사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적극적인 조사나 조정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자치 조직인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공동주택에서는 준칙 개정에 맞춰 관리 규약을 바꾸고 개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자치구에 신고해야 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尹, '수교 60년' 바티칸 교황청에 특사 파견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김대건 성상 기념미사 등 참석

윤석열 대통령이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을 오는 14일~18일 바티칸에 특사로 파견한다고 13일 대통령실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윤 대통령은 한-교황청 수교 60주년을 맞아 교황청과의 관계 증진을 위해 강 수석을 특사로 파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강 특사를 통해 교황청이 해방 후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외교 사절을 파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1948년 유엔총회에서 합법적 정부로 승인받는 데 기여한 점에 대해 감사를 표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강 특사는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인 유희성 추기경과의 면담,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성상 설치 기념 미사와 축복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한국 최초의 사제인 김대건 신부의 성상은 것과도포 등 한국 전통 의상을 착용하고 두 팔을 벌린 모습으로 제작됐다. 성 베드로 대성전 외벽에 아시아 성인의 성상이 설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 특사는 성상 설치 등 대한민국에 보여준 특별한 관심과 애정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교황청과 우호협력 관계가 더욱 강화되길 바란다는 뜻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연합뉴스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땅끝농협 농기계서비스센터 임대 안내

전남 해남군 송지면에 위치한 땅끝농협 농기계서비스센터를 아래와 같이 임대하고자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연락바랍니다.

임대시설 개요

- 주 소 : 전남 해남군 송지면 달마로 19(미야리 219-10)
- 면 적 : 건물(369㎡), 대지(2,584㎡)
- 임대시설물 : 목축물 내 건물 및 기계·공구·비품 일체

임대조건

- 임대기간 및 임대료 : 상호 협의

신청자격 및 방법

- 신청자격
 - 국가기술자격대상 농기계정비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신용정보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농기계수리 서비스업 경력자 우대
- 제출서류 : 신분증, 자격증사본, 주민등록등(초)본
- 신청방법 : 땅끝농협 총무계로 직접 방문 신청

문의사항

- 땅끝농협 총무계로 문의 (전남 해남군 송지면 산정1길 80, ☎ 061-533-2470)

땅끝농업협동조합

보성군 공고 제2023-1210호

보성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주민열람공고

보성읍 우산리 322번지 일원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 및 제19조, 「토지이용규제기법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9월 14일
보 성 군 수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보성읍 우산리 공동주택 신축 계획(안)
 - 위 치 : 보성읍 보성읍 우산리 322번지 일원
 - 사업면적 : 14,819㎡
2. 열람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 2023. 9. 14. ~ 2023. 9. 29.
 - 열람장소 : 보성군청 도시개발과
 - 의견제출 :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작성하여 열람장소에 제출
3. 관계도서(제재 생략)
 - 자세한 내용은 보성군청 도시개발과에 방문하시어 비치된 열람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사항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보성군청 도시개발과(☎061-850-55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산 및 채권신고 공고(1차)

주식회사 씨엠테크는 2023년 08월 31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동년 09월 06일자로 해산 등기를 완료 하였으나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으신 분은 이 공고 게재일로부터 2개월 이내(2023년 11월 14일까지)에 그 채권 액을 당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3년 9월 14일
주식회사 씨엠테크
전라남도 광양시 폭포사당길 20-26 (금호동)
대표청산인 임 승 옥

자본감소 및 주권제출공고

당 회사는 2023년 9월 13일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자본의 총액 금400,000,000원 중 금 250,000,000원을 감소하여 자본금 150,000,000원으로 하기로 결의하고, 그 방법으로 발행주식 총수 40,000주 중 25,000주를 회합하는 주주로 부터 1회당 금10,000원에 매수 유상소각하여 총 발행주식 40,000주를 15,000주로 감소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이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 게재 일일부터 1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이에 공고함. 또한 위 자본감소에 따른 주권을 가진 사 람은 본 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구 주 권을 본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9월 14일
주식회사 헬론(200111-0689451)
광주광역시 북구 청단로333, 306-2에이호 (대촌동, 생활지원로본센터)
대표이사 최 우 형

법인 해산 및 채권 신고 공고(3차)

당 법인은 2023년 7월 13일 임시 이사회에서 2023년 7월 20일자로 해산을 결의 하고, 2023년 7월 20일 해산등기를 완료 하였으나 당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 게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4일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관공재단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누리로 30, 김대중컨벤션센터 1층(지평동)
청산인 김준영 (062-611-3611)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71년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세남**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